

「技術革新의 促進」이 至上課題 經營組織을 技術中心體制로 編해야

名譽會長 全 敬 煥

希望찬 새해를 맞이하여 乙丑年 한해도 會員여러분의 事業이 날로 繁昌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해는 內外的인 制約要因으로 말미암아 우리 經濟가 큰 試鍊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우리會員 企業人들은 政府施策에 呼應하면서 經濟難局을 슬기롭게 克服하기 위한 企業戰略으로써 技術革新을 이룩하는데 힘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今後의 國際經濟環境도 豫測할수가 없거니와 輸出市場에서의 技術競爭은 더한층 熾烈해질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새로운 經營戰略으로서 企業을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여기에 對處하는 길을 오로지 工業所有權을 活用한 技術革新의 促進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企業의 經營組織을 技術中心體制로 改編하여 工業所有權으로 開發한 技術集約商品으로 輸出과 內需에 응하는 한편 海外市場에도 반드시 特許등 工業所有權을 出願하여 權利를 確保함으로써 先進國의 輸入規制網을 손쉽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政府도 「技術革新의 促進」을 今年 施政目標에 包含시켜 尖端技術에 의한 國際競爭力 確保에 힘쓰는 한편 技術集約産業의 輸出을 促進하여 先進經濟 隊列에의 接近을 위한 技術立國을 指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工業所有權의 國際化에 對備하여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파리協約加入에 이어 지난해 8月에는 特許協力條約(PCT)에 加入하는등 國際協力을 增進하여 왔으며 특히 1980년부터 WIPO의 協助로 第1段階 「特許行政現代化事業」을 推進하여 이를 成功裡에 마무리짓고 今年부터는 第2段階 「特許行政現代化事業」을 推進해 나갈 計劃입니다.

이에 副應하여 本會에서도 發明振興事業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보다 前進的인 特許管理體制의 確立에 힘쓰고 아울러 汎國民의 發明思想의 昂揚과 特許意識의 鼓吹는 물론 企業의 技術革新을 誘導하는 研究開發의 土臺를 다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發明振興事業이 좋은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政府의 支援과 本會의 努力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發明의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스스로 크고 작은 發明을 創出하고자 하는 企業과 發明人이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모든 發明主役들의 智慧와 精誠이 하나로 모여질 때 비로서 우리의 所望인 技術立國을 앞당길 수 있음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本會 發展에 同參해 주신 會員 및 發明人諸位 그리고 關係當局에 感謝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健勝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다시한번 빌어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85年 元旦